불자 세상보기

경비원 미담서 자비공동체를 보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대표적 주거 양식 아파트
층간 소음·경비 대한 '갑질'로
우리를 우울케 하지만 미담도

췌장암 경비원에 성금 답지
"우리는 가족" 초등생도 용돈 모아
'자리이타' 자비 정신 구현에 감동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 논어에 나오는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요즘 세태를 보면 덕이 없어 이웃이 없는지, 이웃이 없어 덕이 없는지 어지럽기 만하니 어쩌랴.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이다. 우리의 옛 속담에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는 말도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화, 도시화되면서 이웃과 사는 주거 양식도 많이 변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이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은 제일 밀접한 이웃 관계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우울케 만든다. 층간 소음으로 살인을 하고, 주차문제로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고,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니 벌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가 벌보다 미개한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도덕성 회복의 목청을 돋우고 있으나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지 하는 절망감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 무슨 상쾌한 소식인가?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아파트 주민이 성금을 모아 주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그 경비원은 지적장애인이며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을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모아 성금을 내고 있다니 참으로 가슴 뭉클하다. "경비원 아저씨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해직대신 성금을" 이라는 성금 모금 글귀는 긴 가뭄 중에 소나기처럼 반갑기 만하다.

오늘날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치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제 공동체 구현의 문제는 향수와 이상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의 틀 속에서 조건 지어진 현대인의 삶의 양식이 얼마나 각박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아파트의 경비원 도와주기 운동은 우리의 공동체 구현에 희망의 빛을 주고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공동체에 있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상생'이다. 상생의 형태나 방식은 다양할지라도 상생적 삶의 양식은 공동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특징으로 호혜성이나 상호부조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공동체 실현의 첫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상생적 윤리관의 정립이다. 상생적 윤리관은 바로 붓다의 자비 정신이다. 자비 정신은 바로 연기론에서 나온다. 모든 존재는 한 그물코 안에 서로 얽혀 있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많은 경전에 표현되어 있듯이 자비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행위이다.

즉,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자비의 기능이다. 붓다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목적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 자비 공동체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 희망을 아파트 경비원 미담에서 보는 것이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즉, 자비 공동체의 구현은 구성원의 자비심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비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사회제도, 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자비 공동체 실현은 많은 고뇌와 탐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제발 김용봉 경비원께서 쾌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우리 모두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자.

데스크 칼럼

사찰 숲길서 '녹색의 숨' 흠뻑 마시자



김주일
취재부 부장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다. 잠깐씩 일을 멈추고 며칠 쉰다는 것은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막상 휴가를 떠나보면 정작 휴가가 진정 자신에게 충분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업무와 연계돼 시시각각 울려대는 핸드폰 소리로 여기가 휴가지인지 사무실인지를 착각하게 한다. 사실 정작 필요한 것은 1년에 한번 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벤트처럼 주어지는 휴가가 아니다. 일상서 매일매일 충족되는 휴식이고 자기 시간이 더욱 효과적이다. 결국 하루의 일상서 여유를 못 챙긴다면, 그건 결국 평생 일에 끄달려 달콤한 쉼의 여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래도 열심히 일한 당신들은 멀리든 가까운 곳이든 떠나야 한다. 다시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꽉찬 스트레스를 비워내고 털어내야 새롭게 충전된 새 것들이 들어 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보자.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 쉼을 위해서 말이다.

차량 정체로 도로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산과 바다에 몰려든 관광객들에 치여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온다면 진정한 휴가라 할 수 없다.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진정한 육체적 쉼을 어떻게 찾을지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마음의 정중동을 찾아야 한다. 쉼은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상생활서 더 수월하게 내적 고요를 경험하게 해준다. 일의 고통과 억압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핸드폰 스위치를 단 3일 만이라도 꺼놓자. 여기엔 일상의 착(着)을 잠시 털어내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필자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해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좀 늦어진 일처리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핸드폰의 노예에서 좀 벗어나보자. 정신적 쉼을 즐기기 위한 첫 준비절차다.

그리고 차가 막히지 않는 범위에서 대중교통으로 인근의 산중 사찰을 찾아가 보자. 녹음이 우거져 산사의 숲길은 온통 초록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바라만 봐도 평안하고 즐겁다.

일주문서부터 긴 호흡을 관하며 녹색의 숨을 흠뻑 빨아들이며 걷자. 1시간만 걷고 나면 온통 몸에 땀범벅이 된다. 하지만 노폐물이 빠져 나가면서 느끼는 상쾌함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는 것 이상으로 시원하다.

대중적 휴가지나 관광지를 다녀오면 단 며칠의 쾌락과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 휴가가 끝난 뒤 찾아오는 정신적 쉼과 성숙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산사의 숲길 걷기는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잔잔한 내적 울림과 여운을 준다. 일상도 번잡한데 굳이 휴가까지 가서 번잡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우리는 여름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여름나기의 최대 복병은 열대야다. 이 것은 이제 더 이상 여름에 잠깐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일상화 단계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 열대야 불면의 밤, 그리고 이글거리는 태양. 그러나 차면 비워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남은 더위, 냉방기에 매달려 임시로 모면하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자.

생전에 법정 스님은 "더울 땐 너 자신이 더위가 되라"고 조언하셨다. 더위가 극성이지만 다 한 때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의미이다. 피할 수 없으면 이마저도 즐기자. 언제나 그랬듯이.

社說

불자 선수 선전을 기원한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24개 종목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 각국서 내로라하는 경쟁선수들과 각축을 벌인다. 금메달 10개와 종합순위 10위권 내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 런던올림픽서 뛰어난 활약으로 종합 5위라는 성적에 큰 보탬이 된 불자선수들이 다시 한 번 금자탑을 쌓기 위해 나선다. 배드민턴·레슬링·사격·양궁·펜싱 등 다양한 종목서 4년간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함성이 무더위로 잠 못 드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불자선수들은 주로 사찰과 법당을 찾아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등 각자의 신행방법을 통해 대회를 준비했다. 명상을 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곤 했다. 부모의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 대다수이지만 직접 불교서 느끼는 편안함에 대해서는 모두 엄지를 추켜세운다.

이제는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일만 남았다. 성적을 떠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펼쳐 국민에게 인정받는 불자이자 선수로 각인돼야 한다.

얼마 전 올림픽 선전 기원법회서 선수들이 "무대 뒤에서 기도하는 선수들 마음속에 굳은 의지를,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눈에 밝은 빛을, 시합을 마친 선수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호법신장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한 것처럼 후회 없는 시합을 펼치길 불자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할 때다.

지자체 불교 순례 개발에 관심을

전라남도가 지역 사찰 및 불교유적지를 연계한 31개 성지순례 길을 조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자체 담당부서가 직접 상경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가졌다.

'치유와 상생의 땅, 전남으로의 초대'란 콘셉트로 마련된 이번 불교 순례길에는 템플스테이 사찰 17곳을 포함한 도내 사찰 24곳 및 먹거리 코스를 함께 제공, 숙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청 관광과는 먼저 전남 북부·동부·중서남부 3개 대분류로 나누고, 다시 당일·1박 2일·2박 3일 코스로 나누어 총 31코스를 구성했다.

현재는 시범운용단계에 있지만 향후 31코스를 수정 보완해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이다. 순례길 홍보자료 및 전자책 발간도 예정돼 있다.

사실 전라남도는 경상권에 비해 비교적 불교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살펴보면 주요 천년 고찰들이 대거 위치한 곳이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관광 자원이 많아 순례 여행에는 최적지다.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남다르다. 어떻게 콘텐츠화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천년고찰과 불교 관련 문화재, 유적들은 불교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포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불교계 역시 지자체의 이 같은 순례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지역 사회에는 지자체 대외홍보와 수익 창출을 가져다 주고, 불교에는 불교문화 진흥과 대중 포교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불교는 철저히 지역에 기반한다. 지역불교를 순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불교계가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 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 사백만원정도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건강 약선 음식 전문점
곽가네 음식 통인동 통인시장 내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음식입니다.
불연으로 만난 건강음식을 함께 나누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종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양 구인사에서 4박 5일 동안 지극정성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련한 꿈속에서 천태종 종조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당시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하신지 10여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전에 한번도 뵌 적이 없던 조사님께서 제 기도에 감응하셨는지 나타나시어 저에게 건강을 치유하라며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법을 알려주셨고 그 음식 조리법으로 식생활을 바꾸니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 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조리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7년전 부터 곽가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불자여러분이 편하게 언제든지 접하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건강이 불편하신 불자님들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하옵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찰음식 70% 일반음식 30%
◆불가음식 : 인삼견과류탕, 더덕견과류탕, 연근견과류탕, 우엉견과류탕, 버섯견과류탕
◆건강약선음식 : 정식A, 정식B, 정식C / 선식떡국, 선식냉모밀, 선식온국수, 선식냉국수, 견과류 누룽지탕 ◆일반음식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6길 8 (통인시장 내) 곽가네음식
02)737-7949 / 곽정순 011-9762-7949